

사전출판, 넓어지고 깊어졌다

진보적 연구자·출판사 적극 참여...번역 단계 극복해야

갓가지 사회현상과 이를 반영하는 이념을 수렴하는 인문사회과학은 특히 국내의 경우 지난 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의 터널을 지나왔다. '붕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다양성'과 '혼란'의 경계에서 서있음을 암시하는 복합적인 국내상황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출판물의 형태를 띤 제반 인문과학의 성과물들도 그 변화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전의 경우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전은 그 용도에 있어 '찾아보기' 식의 '辭典'이 주류를 이루면서 참고용 혹은 보조용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일반 단행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양한 '事典'이 본격적으로 등장, 기존의 사전에 대한 인식이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르크스즘 바탕한 사회과학사전 선두

사전출판에 있어 가장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보여주었던 것은, 80년대 치열한 논쟁과 판금·해금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나름의 입지를 마련한 일군의 사회과학도서출판사.

그동안 조악한 번역이나 편역의 형태로 '지하유동' 되던 사회과학사전은 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번역되거나 새로 집필됨으로써 제도권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대중성을 띠기 위한 일보를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사회연구소가 펴낸 「사회과학사전」(풀빛, 1990)으로 그동안의 진보적 학술단체와 출판사의 공동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 체제의 구조와 기본개념을 비롯해 페레스트로이카와 국내 변혁운동의 쟁점 등 최근의 이슈들까지 망라하고 있는데,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균형감각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풀빛출판사는 이에 앞서 6년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경제학사전」(편집부 편, 조용범·박현채 감수, 1988)을 펴낸 바 있다. 그간 서구 근대경제학에 치중하면서 '전문성'에만 편향된 모습을 보였던 사전들에 비해 경제학의 일반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내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비중을 둔 이 사전은 이른바 '쉽게 풀어 쓰기'와 한글전용을 고수함으로써 대중적 경제학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철학사전은 현재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은 종수가 나와 있는데 이들 중 87년에 출간

돼 현재 4판까지 찍어낸 「철학사전」(임석진 외, 중원문화사)은 당시 진보적 철학에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이후 철학사전 출간의 활기를 불어넣어준 계기를 제공했다. 서양철학 뿐 아니라 인도·중국·한국의 동양철학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특히 책임있는 국내집필자들에 의해 씌어졌다는 점에서 이전의 철학사전과의 변별점을 갖는다.

89년에 선보인 동녘의 「철학대사전」은 '대사전'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규모와 함께 본격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통 철학사전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장학자 중심의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3년여의 「役事」 끝에 완성해낸 이 사전은 동구권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 중 가장 권위있는 동독의 「Philosophisches Wörterbuch」(철학사전)와 「Philosophenlexikon」(철학자사전), 그리고 중국의 백과사전 「辭海」 철학분책을 저본으로 '일반된 관점'을 견지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

미학부분에 있어 국내 유일한 「미학사전」(논장, 1988)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에 충실한 사전으로 일어난 미학사전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들 사회과학계통 사전들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 사상사전」(임석진 편, 청아, 1988)도 현재 번역 출간돼 있다. 영미권의 탁월한 마르크스 연구자로 꼽히는 보토포어(Bottomore)와 해리스(Harris) 등에 의해 편찬된 이 사전은 특히 마르크스의 철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과 비평을 감안한 마르크스주의 기초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현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전」(소련과학아카데미 편, 강중수 역, 백산서당, 1989)은 86년 프로그래스사판으로 '소비에트형 사회주의'의 이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서서히 선보이는 북한사전들

이제까지의 사회과학계통 사전의 대부분이 일군의 진보적 학자와 출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편역의 형식이었다면, 올해 출간된 「중국정치경제사전」과 「소련정치경제사전」(이상 서울대국제문제연구소 편, 민음사)은 제도권에서 이뤄진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내 학자들에 의해 직접 집필된 국내제작물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사전은 최근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른 시기적 당위성을



서점에 나와있는 각종 인문과학사전들.

출간계기로 하고 있다는 점과 이념중심이 아닌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중심으로 한 백과사전식 편람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북한원전 출간을 계기로 선보인 북한의 사전들은 남북간의 이질감과 함께 여타의 사회주의권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 사회과학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종합적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 사회과학원 산하의 해당 연구소들이 편찬한 「문학예술사전」(열사람, 1989) 「철학사전」(힘, 1988) 「경제사전」(이성과현실, 1988) 등이 그것들로 그들의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경직성과 도식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학계의 최근의 성과로는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가 엮어낸 「한국근현대사사전」(가람기획, 1990)을 들 수 있다. 재야 사학자 이이화씨가 감수한 이 사전은 186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근현대사를 통사형식으로 편찬한 것으로 북한 관련 항목들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문학부문에서는 주로 비평용어사전과 백과사전식의 한국문학연구사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평용어사전류로는 현재 두 종류의 「문학비평용어사전」(이상삼, 민음사, 1976/최동호·권택영, 새문사, 1981)과 「문학용어사전」(최상규, 보성출판사, 1989) 「문예비평용어사전」(김용직, 탐구당, 1985) 등이 나와 있다.

이들 사전은 대부분 영미 신비평이후 이론서들의 편역 형태로 그 저본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전식으로 배열된 문학개론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문학의 상징·주제사

전」(스크트릭 외, 장영수 역, 청하, 1989)이 나와 있어 보다 세분화된 전문사전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초학과 언어학 관계 사전도 나와 있다.

한국문학연구사전으로는 올해 간행된 「한국문학연구사전」(이여령 편저, 우석)과 「한국근대문인대사전」(권영민 저, 아세아문화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자가 작가의 사적인 전기적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후자는 작가의 작품활동에 비중을 둔 방대한 규모의 사전이다.

다양화의 주역은 '진보진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사회과학사전 출판에 있어 '다양화'의 주역은 아직까지는 이른바 '진보적 진영'이 담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학자층이 확대되어 그들의 연구성과를 집약할 매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일반 단행본 이외의 사전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풀빛출판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의 사회과학도서의 대중화 경향으로 고조된 일반인들의 관심이 사회과학사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사전들이 대부분 편역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필진에 의한 '주체적' 사전의 필요성이 절감되며, 이왕의 성과를 계기로 타 분야에 있어서도 사전출판이 활기를 띠게 되어 사전의 '편식'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정소연 기자